

# 백련사랑 연꽃축제 개최

## 당진 정토사, 청소년 문화와 함께

당진 정토사(주지 선오)는 8월 2~3일 '제3회 백련사랑 연꽃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당진군과 백련연농조합법인, 당진지역동선터, 면천면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해 '생명, 사랑, 나눔으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축제 기간 내 체험 행사를 열어 환경영화 감상을 비롯해 백련을 가공해 만든 냉면·밥·아이스크림·수육·선식·꽃주·두부 등 갖가지 음식들을 선보였다. 또한 백련밭이 풍요 나눠주기, 화차, 잎차, 녹차 등의 백련 꽃차 시음과 백련 화장품 체험, 연자아트 체험 등이 많은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백련사랑 연꽃 축제와 함께 진행된 청소년 축제 '선재, 연꽃에 오르다-백련 b-boy&poppin battle vol.2'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청

소년들의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 행사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비보잉, 댄스경연, UCC, 사생 및 비트박스 대회 등을 통해 불교문화와 청소년문화를 함께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오 스님은 "백련은 최상의 깨달음과 부귀, 자손창성, 영생 등의 의미를 담고 있고, 오탁의 연꽃을 향기로움으로 가득하게 하는 부처님의 화현이다"며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백련과 같은 자태와 향기로움을 갖게 될 것이기에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토사는 축제 개막식에서 자연 친화적 환경도시를 기원하는 친환경 빙그릇 운동과 알앤비싱어, 라비야 밸리댄스 등의 초청공연도 가졌다.

손효선 기자

# 군민에 납골당 무료 분양

## 금산 일불사, 무연고 영가 3만위도 봉안

충남 금산군 군민에게 납골당을 무료로 분양해 주고 있는 사찰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곳은 바로 일불사(주지 성진)다.

일불사에서 본격적으로 납골시설을 운영하게 된 것은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전부터 주지 성진 스님은 납골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설 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스님은 납골시설을 혐오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장묘문화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해 왔다.



일불사 납골묘원 전경. 원내는 일불사 주지 성진 스님.

납골당을 운영하기까지 성진 스님은 금산군민과 하루가 멀다 하고 부딪쳐 왔다. 하지만 납골시설을 유치한 후 스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역 주민에게 납골시설을 무료로 분양해 주는 것이었다.

성진 스님은 "아무래도 납골당이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전까지 많은 금산군민들이 반대를 해 왔고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군민들이 있다"며 "하지 않아도 될 우려를 하게 만들어 너무 죄송해서 그 고충에 대한 미안함을 납골당 무료분양을 시작으로 조금씩 갚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금산군민이 신청한 납

골 향아리는 약 200여 기. 일불사는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전국의 무연고 영가 납골 향아리 약 3만기를 봉안하고 있다. 앞으로 7만 여기를 더 받을 예정이다.

일불사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은 '일리지움'으로 불린다. 죽음에 대한 기존의 무겁고 어두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우리들의 인식을 바꿔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즉, 납골당은 현대의 트렌드인 '웰빙(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 참다운 삶을 사는가)'이 '웰다잉(어떻게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고 품위있게 하는가)'으로 변해가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 자연을 보호하면서 성묘와 후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성진 스님은 "일불사 일리지움은 납골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는 지역단체와 가정환경이 어려운 유가족 등에게 조그만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사업이 정착이 되면 장학재단과 양로원 등을 설립할 예정이다"며 "납골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최종 목표는 금산군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효선 기자

# 난계국악축제 속 불교음악 만나자

## 반야사 23일, 영국사 24일 불교·명상음악제



지난해 열린 영국사 산사음악제 모습.

영동지역에서 열린 제41회 난계국악축제에서 불교음악과 명상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영동군청은 '산사에서 펼쳐지는 깨달음과 예술의 세계-산사음악제'라는 주제로 영동 반야사와 영국사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8월 23일 오후 5시 반야사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불교 전통의식인 바라춤과 승무 등을 선보이는 '불교음악-산사음악제'다. 이날 음악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바라무와 나무무를 강의 중

인 덕림 스님의 '바라춤'과 중요무형문화제 제97호 도살풀이춤의 전수자 조희열씨의 '승무' 등을 선보인다.

이제 24일 오후 5시에는 영국사에서 '명상음악-산사음악제'가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토대로 작품을 창작하는 음악극집단 '바람꽃'과 생활의 김태경, 해외에서 초청한 네팔의 민속음악 아티스트 Sur Sudha, 인도의 Mohammed Nizam & Mohammed Akram 등의 무대가 펼쳐진다.

손효선 기자

# 전국 교도소 수용자 효편지 공모

## 9월 1일~10월 1일 옥천 대성사서 접수

제3회 전국 교도소 수용자 효편지, 수필, 신행수기 공모 및 제1회 수용자 가족들의 효 편지, 수필, 신행수기, 서예, 그림 공모전이 열린다.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 청주교도소 종교위원)는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의 '효' 사상을 고취하고 가족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 현대 불교신사를 비롯해, 한국불교신문사, BBS청주불교방송의 후원으로 9월 1일~10월 1일 작품을 공모한다. 수용자는 효 편지, 시, 신앙(불교

수기, 수필 등 갱생의 의욕이 담긴 내용을 담으면 되고, 가족은 효 편지 및 사랑의 편지, 시, 서예, 그림 등을 응모할 수 있다.

당선작 발표는 10월 15일 해당 교도(구치)소로 통보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가족들의 작품은 개별통지한다. 가족 이상의 작품은 가명을 사용하여 <길 누군가와 함께> 수필집 3권으로 출판된다. 작품은 (우)373-804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대성사로 보내면 된다. (043)732-5560 손효선 기자

# 대전교정련 신임회장

## 만청 스님 취임식

법무부산하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신임회장 만청 스님(미암사 주지) 취임식이 7월 30일 대전 국군휴양소 무궁화 홀에서 봉행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만오 스님(당송 직업훈련소), 이재운 중앙연합회 회장, 박상도 대전사회복지연합회 회장, 이희준 원주교정연합회 회장, 고종석 대전교도소 소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만청 스님은 취임사에서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 “모두 내 부모·스승같이”

불국토를 찾아서 | 공주 금강원

“할머니 전문 요양원일까?” 공주 우성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공주 금강원(원장 정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었다. 1993년 동학사 동문들에 의해 만들어진 금강원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이 있는 무의탁 어르신 50여명이 동고동락하고 있었다.

금강원 원장 정관 스님(원화사 주지·사진왼쪽)은 “노(老)스님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문들이 힘을 모아 이곳을 만들게 됐다”며

양원에 올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 쓸쓸함에 더 힘들어 한다”며 “그런 어르신들이 죽음을 편하게 맞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함께 슬퍼할 사람, 낯을 가려줄 사람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간혹 찾아오는 할아버지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모시고 있기도 했다. 때문에 건물 내의 공간을 분리해 남녀 어르신들을 따로 모시게 돼 봉사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기도 했



### “심리적 안정에 최선... 후원자에 감사”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원을 이끌어갈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현재는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원으로 꾸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강원의 소문은 자자하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찾아오는 어르신들로 인해 폐교를 개조해 사용하는 수용시설이 부족할 정도다. 법인 요양원도 아닌 이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필카.

그것은 바로 정관 스님의 금강원 운영 방침 때문. 금강원 개원부터 지금까지 원장으로서 내내 ‘내 부모와 같이, 내 스승과 같이, 내 자식과 같이’ 어르신들을 대해왔던 것이다. 매끼마다 반찬에는 고기가 들어가야 하고, 꼬박꼬박 간식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직접 염불을 도맡아 해왔다고 한다.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은 요

다. 그럼에도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짜증대신 웃음이 묻어 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금강원에 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사회단체의 후원이 없다면 어르신들이 당장 먹을 음식부터 막막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유는 어르신들이 먹는 음식의 기본 재료를 일일이 후원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 그런데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조금씩 도움이 손길이 찾아오고 있어 운영 초기에 했던 걱정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한다.

정관 스님은 “꾸준히 금강원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할 따름이지만 여전히 봉사의 손길은 필요한 것 같다”며 “염치불구한 말이지만 금강원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불교계의 손길이 사랑 세계 곳곳에 뻗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041)853-1068 손효선 기자

# (사) 한국결혼상담소협회에서 최첨단 맞선 프로그램 출시!

사단법인 한국결혼상담소협회  
고운 해철 대성사 주지스님

## 국내, 국제 결혼정보업계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WedManager 2008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 프로그램의 기능

- 계약관리
- 회원관리
- 희망정보관리
- 회원매칭관리
- 성혼자관리
- 물량회원관리
- 주소록관리
- 매니저관리
- 홈페이지정보관리
- 전국결혼상담소 연결기능 등!

**주문 및 전화문의**

**043-732-5560**  
**010-9422-8453**

**뉴페이스결혼소프트웨어**

**News !!!**

매일 100개 이상의 공유 프로필이 전국에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단 한개만 입력해두셔도 맞선 요청 전화가 걸려 옵니다!!!